

경상북도

Yeongcheon



영천포도

풍부한 일조량과 적은 강수량 등 포도재배에 알맞은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춘 영천지역에서 생산된 영천포도는 당도가 높아 맛과 향이 좋고, 과분이 잘 생기며 외관이 아름다워 소비자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01 • 유래

한국에는 고려시대에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추측되며 《조선왕조실록》 등에도 포도에 관한 기록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재배는 1906년 서울 독성에 원예모범장을 설립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02 • 특성

포도재배에 알맞은 지리적 여건, 비가림재배, 퇴비 및 유기질 비료 사용, 재배단지 집단화로 상호기술정보의 교환과 철저한 품질관리로 당도가 높고 품질이 우수합니다.

| 상표명 |
영천포도

| 권리자 |
사단법인 영천포도생산자협회

| 등록번호 |
제 46호

| 상품분류 |
제 31류 포도(신선한 것)

연락처
사단법인 영천포도생산자협회
054-337-2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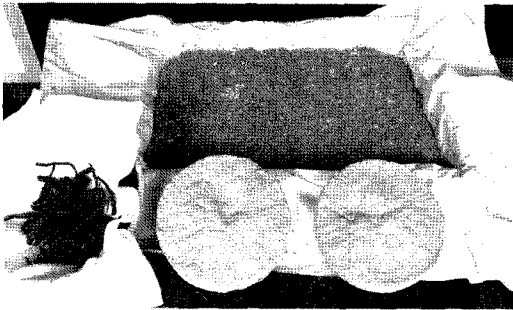


경상북도 영천



진도홍주

전통주 중에서도 독특하게 제조되는 술이며 홍주의 원액에 숙취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초를 적당량 용출하여 색과 맛, 향을 독특하게 발휘한 것이 진도홍주입니다.**



| 상표명 |
진도홍주

| 권리자 |
사단법인 진도홍주연합회

| 등록번호 |
제 4호

| 상품분류 |
제 33류 홍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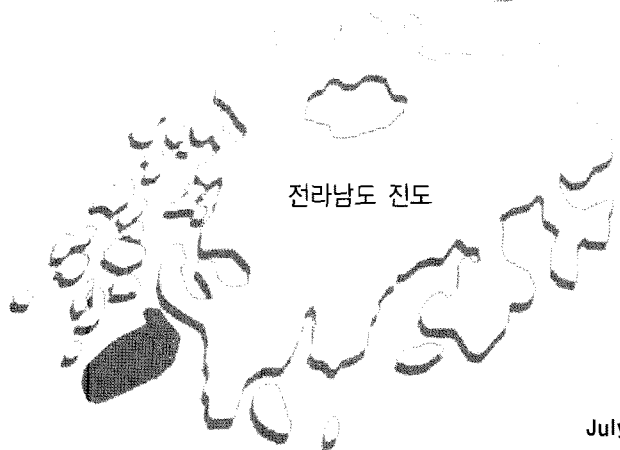
연락처
사단법인 진도홍주연합회
061-540-6361

01 • 유래

진도홍주는 고려시대 때 증류주인 소주가 도입되어 북부지역과 상류사회에 퍼졌으며 조선시대에는 지방의 민가에서까지 양조하게 되었습니다. 고려시대 이후 우수한 전통주로 지금은 유일하게 전남진도에만 남아있는데 이것이 진도홍주입니다. 진도홍주가 처음 빛어진 때는 고려 초라는 말이 있기도 하나 널리 알려진 것은 조선시대이며 이 시대에는 진도 홍주를 '지초주'라 하여 최고 진상품으로 꼽혔습니다.

02 • 특성

진도홍주는 제조비법만큼이나 맛, 향, 색깔이 독특하고 우선 잔에 따르면 영롱한 선홍색이 마음을 설레게 하고 한 모금 입에 넣으면 입안과 코끝까지 묵직하게 느껴오는 맛과 향이 감미롭습니다. 다만 몸에 좋은 술이라 인식되면서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해 고생한 사람이 많다보니 독한 술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진도홍주는 알코올도수가 40% 내외의 적당히 마셔야만 그 향과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진도